

ETHER LIBRARY

0025

도덕경

道德經

노자

Laozi · c. 4th c. BC

철학 · 종교

도덕경

道德經

노자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道德經 (도덕경). 『노자(老子)』라고도 한다

지은이 노자(老子, 전국 시대 무렵. 실존과 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성립 기원전 4세기 무렵으로 본다. 『사기』는 노자가 초나라 사람 이이(李耳)로 주나라 왕실의 장서를 맡았고, 세상을 떠나며 관문을 지키던 윤희(尹喜)의 청으로 상하 두 편 오천여 자를 남겼다고 전한다. 지금 전하는 81장의 꼴은 3세기 위나라 왕필(王弼)이 주를 단 「왕필본」을 기준으로 굳었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노자(老子)가 남겼다고 전하는 『도덕경(道德經)』 81장을 한문 원전에서 직접 옮긴 완역본입니다. 영어 번역을 거쳐 옮긴 중역이 아닙니다. 저본은 지금 널리 통행하는 81장 본문의 전자 텍스트로, 3세기 위나라 왕필(王弼)이 주를 단 「왕필본」 계열입니다. 글자는 대부분 왕필본과 같고, 몇 자리에 하상공본(河上公本) 같은 다른 판본의 글자가 섞여 있습니다. 제임스 레그(James Legge)의 영어 번역(1891)은 뜻을 확인하는 대조에만 썼고, 레그가 덧붙인 풀이와 해설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문과 번역

장마다 한문 원문을 먼저 싣고 그 아래에 번역을 실었습니다. 원문은 구절마다 한 줄로 끊었고, 번역도 원문 한 줄에 한 줄씩 맞추었습니다. 원문의 어느 구절이 번역의 어느 줄인지 줄을 세어 찾을 수 있습니다.

저본 전자 텍스트가 간체자를 번체자로 되돌리며 생긴 글자(於를 于로, 後를 后로, 樸을 朴으로 적은 것 따위)는 원문에서도 바로잡아 실었습니다. 제20장에서 저본이 글자를 찍지 못하고 비워 둔 두 글자는 왕필본에 따라 「儽儽」으로 채웠고, 제64장의 오식 두 자리(敗를 拜로, 失을 師로 적은 것)도 바로잡았습니다. 저본이 왕필본과 글자가 달라 뜻이 바뀌는 자리는 원문을 저본대로 두고 저본대로 옮긴 뒤, 왕필본의 읽기를 각주에 밝혔습니다(제1·15·17·25·28·39장).

상편과 하편

제1장부터 제37장까지를 상편 「도경(道經)」, 제38장부터 제81장까지를 하편 「덕경(德經)」이라 합니다. 장에는 번호만 달고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문체

노자는 짧게 말하고, 말을 뒤집어 놓습니다. 번역도 하다체로 짧게 끊었고, 원문의 대구와 되풀이는 우리말에서도 같은 틀로 되풀이했습니다. 「큰 솜씨는 서툰 듯하다」 같은 역설은 풀어서 화해시키지 않고 원문만큼 열어 두었습니다. 원문의 「吾」와 「我」는 「나」로 옮겼습니다.

낱말

책 전체를 꿰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로만 옮겼습니다. 道는 **도**, 德은 **덕**, 聖人은 **성인**입니다.

無爲는 **무위**로 옮기고, 문장 속에서는 「함이 없다」로 풀었습니다. 「함이 없으나 하지 않는 것이 없다(無爲而無不爲)」가 그 예입니다.

自然은 오늘 우리가 쓰는 「자연」으로 읽히지 않도록 **스스로 그러함**으로 옮겼습니다.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常은 **늘 그러함**, 樸은 **통나무**(다듬지 않은 나무), 玄은 **가물하다**로 옮겼습니다. 有와 無는 「있음」과 「없음」입니다.

원문이 장마다 실려 있으므로 번역 속의 한자 병기는 뜻이 흐려지기 쉬운 몇 낱말에만 아껴 달았습니다.

각주

각주는 모두 옮긴이가 붙였습니다(모두 16개). 짚으로 엮은 개, 왼쪽 어음처럼 모르면 문장이 읽히지 않는 옛 사물과 제도, 그리고 읽기가 크게 갈리거나 저본이 왕필본과 달라 뜻이 바뀌는 자리에만 짧게 달았습니다.

노자의 뜻을 풀이한 옛 주석가들(왕필, 하상공 등)의 해설과 레그의 해설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차례

상편 도경(道經) 12

제1장 13

제2장 15

제3장 16

제4장 17

제5장 18

제6장 19

제7장 20

제8장 21

제9장 22

제10장 23

제11장 24

제12장 25

제13장 26

제14장 27

제15장 29

제16장 31
제17장 32
제18장 33
제19장 34
제20장 35
제21장 37
제22장 38
제23장 39
제24장 41
제25장 42
제26장 44
제27장 45
제28장 47
제29장 48
제30장 49
제31장 50
제32장 52
제33장 53
제34장 54
제35장 55
제36장 56

제37장 57
하편 덕경(德經) 58
제38장 59
제39장 61
제40장 63
제41장 64
제42장 66
제43장 67
제44장 68
제45장 69
제46장 70
제47장 71
제48장 72
제49장 73
제50장 74
제51장 76
제52장 77
제53장 78
제54장 79
제55장 80
제56장 82

제57장 83
제58장 85
제59장 86
제60장 88
제61장 89
제62장 90
제63장 92
제64장 93
제65장 95
제66장 96
제67장 97
제68장 99
제69장 100
제70장 101
제71장 102
제72장 103
제73장 104
제74장 105
제75장 106
제76장 107
제77장 108

제78장 109
제79장 110
제80장 111
제81장 112

상편 도경(道經)

제1장부터 제37장까지

제1장

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故常無，欲以觀其妙；
常有，欲以觀其徼。
此兩者，同出而異名，同謂之玄。
玄之又玄，眾妙之門。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 붙일 수 있으면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없음은 하늘과 땅의 처음을 일컫고[1],
있음은 만물의 어머니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늘 없음으로는 그 오묘함을 보려 하고[2],
늘 있음으로는 그 가장자리를 보려 한다.
이 둘은 한데서 나왔으나 이름을 달리하니, 함께 일러 가물하다(玄)고 한다.
가물하고 또 가물하니, 온갖 오묘함이 드나드는 문이다.

---

1. 저본의 끊어 읽기(無, 名天地之始)를 따랐다. 왕필(王弼)은 「이름 없음은 하늘과 땅의 처음이고, 이름 있음은 만물의 어머니다」로 읽었다.

2. 역시 저본의 끊어 읽기(常無, 欲以觀其妙)를 따랐다. 왕필은 「늘 욕심이 없으면 그 오묘함을 보고, 늘 욕심이 있으면 그 가장자리를 본다」로 읽었다.

제2장

天下皆知美之為美，斯惡矣；
皆知善之為善，斯不善矣。
故有無相生，難易相成，長短相形，高下相傾，音聲相和，前後相隨。
是以聖人處無為之事，行不言之教。
萬物作焉而不辭，生而不有，為而不恃，功成而弗居。
夫唯弗居，是以不去。

천하가 모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알면 이미 추함이 있고,
모두 착한 것을 착하다고 알면 이미 착하지 않음이 있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고, 긴 것과 짧은 것은 서로 드러내고, 높은 것과 낮은 것은 서로 기대고,
가락과 소리는 서로 어울리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그래서 성인은 무위(無爲)의 일에 머물고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이 일어나도 마다하지 않고, 낳되 가지지 않고, 하되 기대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거기 머물지 않는다.
오직 머물지 않기에 떠나지도 않는다.

제3장

不尚賢，使民不爭；
不貴難得之貨，使民不為盜；
不見可欲，使民心不亂。
是以聖人之治，虛其心，實其腹，弱其志，強其骨。
常使民無知無欲。
使夫智者不敢為也。
為無為，則無不治。

현명한 사람을 떠받들지 않으면 백성이 다투지 않고,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이 도둑질하지 않고,
탐낼 만한 것을 내보이지 않으면 백성의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며,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
늘 백성이 앎도 없고 욕심도 없게 하고,
안다는 사람이 감히 나서지 못하게 한다.
함이 없음을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제4장

道沖，而用之或不盈。
淵兮，似萬物之宗；
挫其銳，解其紛，和其光，同其塵；
湛兮似或存。
吾不知誰之子？
象帝之先。

도는 비어 있으나 아무리 써도 차지 않는다.
깊구나, 만물의 근원 같다.
날카로움을 꺾고, 얽힘을 풀고, 빛을 누그러뜨리고, 티끌과 하나가 된다.
맑고 고요하구나, 무엇인가 있는 것만 같다.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
하늘의 임금보다도 먼저인 듯하다.

제5장

天地不仁，以萬物為芻狗；
聖人不仁，以百姓為芻狗。
天地之間，其猶橐籥乎？
虛而不屈，動而愈出。
多言數窮，不如守中。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만물을 짚으로 엮은 개(芻狗)[1]처럼 여기고,
성인은 어질지 않아 백성을 짚으로 엮은 개처럼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지 않은가?
비어 있으나 다하지 않고, 움직일수록 더 나온다.
말이 많으면 자주 막히니, 가운데를 지키느니만 못하다.

---

1. 옛날 제사 때 짚으로 엮어 만든 개. 제사 동안에는 정성껏 받들지만, 제사가 끝나면 길에 버려 밟히게 했다.

제6장

谷神不死，是謂玄牝。
玄牝之門，是謂天地根。
綿綿若存，用之不勤。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으니, 이것을 가물한 암컷(玄牝)이라 한다.
가물한 암컷의 문, 이것을 하늘과 땅의 뿌리라 한다.
실낱처럼 이어져 늘 있는 듯하고, 아무리 써도 지치지 않는다.

제7장

天長地久。
天地所以能長且久者，以其不自生，故能長久。
是以聖人後其身而身先，外其身而身存。
非以其無私邪？
故能成其私。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간다.
하늘과 땅이 길고 오래갈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길고 오래갈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은 제 몸을 뒤에 두는데도 몸이 앞서고, 제 몸을 밖에
두는데도 몸이 보존된다.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제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다.

제8장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眾人之所惡，故幾於道。
居善地，心善淵，與善仁，言善信，政善治，事善能，動善時。
夫唯不爭，故無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뭇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니, 그래서 도에 가깝다.
머물기는 땅이 좋고, 마음은 깊음이 좋고, 사귐은 어짊이 좋고, 말은 미더움이 좋고, 다스림은 바로잡음이 좋고, 일은 능함이 좋고, 움직임은 때 맞음이 좋다.
오직 다투지 않기에 허물이 없다.

제9장

持而盈之，不如其已；
揣而銳之，不可長保。
金玉滿堂，莫之能守；
富貴而驕，自遺其咎。
功遂身退，天之道。

쥐고서 가득 채우느니 그만두는 것이 낫고,
두드려 날카롭게 벼리면 오래 지킬 수 없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지켜 낼 수 없고,
부유하고 귀한데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긴다.
공을 이루면 몸을 물리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제10장

載營魄抱一，能無離乎？
專氣致柔，能嬰兒乎？
滌除玄覽，能無疵乎？
愛國治民，能無為乎？
天門開闔，能為雌乎？
明白四達，能無知乎？
生之畜之，生而不有，為而不恃，長而不宰，是謂玄德。

넋을 싣고 하나를 품어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기운을 오롯이 모아 부드러움에 이르러 갓난아이처럼 될 수 있는가?
가물한 거울을 씻고 닦아 티 하나 없게 할 수 있는가?
나라를 아끼고 백성을 다스리되 함이 없을 수 있는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암컷이 될 수 있는가?
밝게 사방에 통하면서도 앎이 없을 수 있는가?
낳고 먹여 기른다. 낳되 가지지 않고, 하되 기대지 않고, 기르되 부리지 않는다. 이것을 가물한 덕(玄德)이라 한다.

제11장

三十輻共一轂，當其無，有車之用。
埏埴以為器，當其無，有器之用。
鑿戶牖以為室，當其無，有室之用。
故有之以為利，無之以為用。

서른 개 바퀴살이 바퀴통 하나에 모이는데, 그 빈 곳이 있어 수레의 쓰임이 있다.
진흙을 이겨 그릇을 빚는데, 그 빈 곳이 있어 그릇의 쓰임이 있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 빈 곳이 있어 방의 쓰임이 있다.
그러므로 있음은 이로움이 되고, 없음은 쓰임이 된다.

제12장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馳騁畋獵，令人心發狂；
難得之貨，令人行妨。
是以聖人為腹不為目，故去彼取此。

다섯 빛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다섯 가락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다섯 맛은 사람의 입맛을 버려 놓고,
말 달리며 사냥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의 걸음을 그르친다.
그래서 성인은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제13장

寵辱若驚，貴大患若身。
何謂寵辱若驚？
寵為下，得之若驚，失之若驚，是謂寵辱若驚。
何謂貴大患若身？
吾所以有大患者，為吾有身，及吾無身，吾有何患？
故貴以身為天下，若可寄天下；
愛以身為天下，若可託天下。

총애도 욕됨도 놀란 듯이 받고, 큰 근심을 제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총애도 욕됨도 놀란 듯이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총애는 낮은 것이니, 얻어도 놀란 듯하고 잃어도 놀란 듯하다. 이것을 총애도 욕됨도 놀란 듯이 받는다고 한다.
큰 근심을 제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내게 몸이 있기 때문이니, 내게 몸이 없다면 내게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제 몸을 귀히 여기듯 천하를 위하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맡길 만하고,
제 몸을 아끼듯 천하를 위하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내맡길 만하다.

제14장

視之不見，名曰夷；
聽之不聞，名曰希；
搏之不得，名曰微。
此三者不可致詰，故混而為一。
其上不皦，其下不昧。
繩繩不可名，復歸於無物。
是謂無狀之狀，無物之象，是謂惚恍。
迎之不見其首，隨之不見其後。
執古之道，以御今之有。
能知古始，是謂道紀。

보아도 보이지 않으니 '희미함(夷)'이라 이름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아스라함(希)'이라 이름하고,
잡아도 잡히지 않으니 '미미함(微)'이라 이름한다.
이 셋은 끝까지 따져 물을 수 없으니, 그래서 뒤섞여 하나가 된다.
그 위는 밝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다.
끝없이 이어져 이름 붙일 수 없고, 다시 아무것도 없음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꼴 없는 꼴, 아무것도 없는 것의 모습이라 하고, 흐릿하고
어렴풋하다고 한다.
맞이해도 그 머리가 보이지 않고, 뒤따라도 그 꽁무니가 보이지 않는다.

옛 도를 쥐고 오늘의 있음을 다스린다.
옛 처음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을 도의 벼리라 한다.

제15장

古之善為士者，微妙玄通，深不可識。
夫唯不可識，故強為之容：豫兮若冬涉川；
猶兮若畏四鄰；
儼兮其若客；
渙兮若冰之釋；
敦兮其若樸；
曠兮其若谷；
混兮其若濁。
孰能晦以理之徐明？
孰能濁以靜之徐清？
孰能安以動之徐生？
保此道者不欲盈。
夫唯不盈，故能蔽而新成。

옛날에 선비 노릇을 잘한 사람은 미묘하고 가물하게 통하여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오직 알 수 없기에 억지로 그 모습을 그려 보면 이렇다. 머뭇거리는구나, 겨울에 내를 건너듯 하고,
망설이는구나,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하고,
의젓하구나, 손님처럼 하고,
풀어지는구나, 얼음이 녹듯 하고,

도탑구나, 다듬지 않은 통나무 같고,
텅 비었구나, 골짜기 같고,
뒤섞였구나, 흐린 물 같다.
누가 어둠을 다스려 천천히 밝힐 수 있는가?
누가 흐린 것을 고요히 가라앉혀 천천히 맑힐 수 있는가?
누가 가만히 있는 것을 움직여 천천히 살아나게 할 수 있는가?
이 도를 지키는 사람은 채우려 하지 않는다.
오직 채우지 않기에 낡을 수 있고 새로 이룰 수 있다[1].

---

1. 저본은 「蔽而新成」이다. 왕필본은 「蔽不新成」으로, 「낡은 채로 있고 새로 이루지 않는다」로 읽힌다.

제16장

致虛極，守靜篤，萬物並作，吾以觀復。
夫物芸芸，各復歸其根。
歸根曰靜，靜曰復命。
復命曰常，知常曰明。
不知常，妄作凶。
知常容，容乃公。
公乃王，王乃天，天乃道，道乃久，沒身不殆。

빔을 끝까지 이루고 고요함을 도탑게 지키면, 만물이 함께 일어나는데 나는 그것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
만물은 무성하게 자라지만 저마다 제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감을 고요함이라 하고, 고요함을 제 명으로 돌아감이라 한다.
제 명으로 돌아감을 늘 그러함이라 하고, 늘 그러함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한다.
늘 그러함을 모르면 함부로 움직여 흉하다.
늘 그러함을 알면 너그럽고, 너그러우면 공평하다.
공평하면 왕답고, 왕다우면 하늘답고, 하늘다우면 도답고, 도다우면 오래가니, 몸이 다하도록 위태롭지 않다.

제17장

太上，下不知有之；
其次，親而譽之；
其次，畏之；
其次，侮之。
信不足焉，有不信焉。
悠兮其貴言。
功成事遂，百姓皆謂：「我自然」。

가장 높은 임금은 아랫사람이 그가 있는 줄도 모르고[1],
그다음은 가까이하며 기리고,
그다음은 두려워하고,
그다음은 업신여긴다.
믿음이 모자라면 믿지 않음이 생긴다.
느긋하구나, 말을 귀하게 아낀다.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끝나면 백성은 모두 "우리가 스스로
그러하다(自然)"고 말한다.

---

1. 저본은 「下不知有之」이다. 왕필본은 「下知有之」로, 「아랫사람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안다」로 읽힌다.

제18장

大道廢，有仁義；
智慧出，有大偽；
六親不和，有孝慈；
國家昏亂，有忠臣。

큰 도가 무너지면 어짊과 의로움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면 큰 거짓이 생기고,
육친이 화목하지 않으면 효도와 자애가 생기고,
나라가 어둡고 어지러우면 충신이 생긴다.

제19장

絕聖棄智，民利百倍；
絕仁棄義，民復孝慈；
絕巧棄利，盜賊無有。
此三者，以為文不足。
故令有所屬：見素抱樸，少私寡欲。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로움이 백 배가 되고,
어짊을 끊고 의로움을 버리면 백성이 효도와 자애로 돌아오고,
솜씨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둑이 없어진다.
이 세 가지는 겉치레라 그것만으로는 모자란다.
그러므로 기댈 데를 두게 하니, 흰 바탕을 드러내고 다듬지 않은
통나무(樸)를 품으며,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한다.

제20장

絕學無憂。
唯之與阿，相去幾何？
善之與惡，相去若何？
人之所畏，不可不畏。
荒兮其未央哉！
眾人熙熙，如享太牢，如登春臺。
我獨泊兮其未兆，如嬰兒之未孩。
儽儽兮，若無所歸。
眾人皆有餘，而我獨若遺。
我愚人之心也哉！
沌沌兮。
俗人昭昭，我獨昏昏。
俗人察察，我獨悶悶。
澹兮其若海，飂兮若無止。
眾人皆有以，我獨頑且鄙。
我獨異於人，而貴食母。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다.
"예"와 "응"은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착한 것과 악한 것은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아득하구나, 끝이 없구나!
뭇사람은 흥청거리며, 소 잡은 큰 잔치를 즐기는 듯하고 봄날 누대에 오른 듯하다.
나 홀로 담담하구나, 아무 기미도 없이, 아직 웃을 줄 모르는 갓난아이 같다.
지쳐 늘어졌구나, 돌아갈 곳이 없는 듯하다.
뭇사람은 모두 남음이 있는데 나 홀로 잃어버린 듯하다.
내 마음은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로구나!
흐리멍덩하구나.
세상 사람은 똑똑한데 나 홀로 흐릿하다.
세상 사람은 꼼꼼히 따지는데 나 홀로 어수룩하다.
고요하구나, 바다 같고, 휘몰아치는구나, 그칠 데가 없는 듯하다.
뭇사람은 모두 쓸모가 있는데 나 홀로 고집스럽고 촌스럽다.
나 홀로 남과 달라, 먹여 주는 어머니를 귀하게 여긴다.

제21장

孔德之容，惟道是從。
道之為物，惟恍惟惚。
惚兮恍兮，其中有象；
恍兮惚兮，其中有物。
窈兮冥兮，其中有精；
其精甚真，其中有信。
自今及古，其名不去，以閱眾甫。
吾何以知眾甫之狀哉？
以此。

큰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른다.
도라는 것은 어렴풋하고 흐릿할 뿐이다.
흐릿하고 어렴풋하구나, 그 가운데 모습이 있다.
어렴풋하고 흐릿하구나,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
그윽하고 어둡구나, 그 가운데 알맹이가 있다.
그 알맹이는 참으로 참되니, 그 가운데 미더움이 있다.
지금부터 옛날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만물의 처음을 살핀다.
내가 무엇으로 만물의 처음이 그러함을 아는가?
이것으로 안다.

제22장

曲則全，枉則直，窪則盈，敝則新，少則多，多則惑。
是以聖人抱一為天下式。
不自見，故明；
不自是，故彰；
不自伐，故有功；
不自矜，故長。
夫唯不爭，故天下莫能與之爭。
古之所謂曲則全者，豈虛言哉！
誠全而歸之。

굽으면 온전하고, 휘면 곧고, 패이면 차고, 해지면 새로워지고, 적으면 많아지고, 많으면 헷갈린다.
그래서 성인은 하나를 품어 천하의 본보기가 된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니 밝고,
스스로 옳다 하지 않으니 빛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니 공이 있고,
스스로 뽐내지 않으니 오래간다.
오직 다투지 않기에 천하에 그와 다툴 수 있는 이가 없다.
옛말에 "굽으면 온전하다"고 한 것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참으로 온전함을 지켜 그리로 돌아간다.

제23장

希言自然。
故飄風不終朝，驟雨不終日。
孰為此者？
天地。
天地尚不能久，而況於人乎？
故從事於道者，同於道；
德者，同於德；
失者，同於失。
同於道者，道亦樂得之；
同於德者，德亦樂得之；
於失者，失亦樂得之。
信不足焉，有不信焉。

말을 아끼는 것이 스스로 그러함(自然)이다.
그러므로 회오리바람은 아침나절을 넘기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누가 이렇게 하는가?
하늘과 땅이다.
하늘과 땅도 오래 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그러므로 도를 좇아 일하는 사람은 도와 하나가 되고,
덕을 좇는 사람은 덕과 하나가 되고,

잃음을 좇는 사람은 잃음과 하나가 된다.
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 도 또한 기꺼이 그를 얻고,
덕과 하나가 된 사람은 덕 또한 기꺼이 그를 얻고,
잃음과 하나가 된 사람은 잃음 또한 기꺼이 그를 얻는다.
믿음이 모자라면 믿지 않음이 생긴다.

제24장

企者不立；
跨者不行；
自見者不明；
自是者不彰；
自伐者無功；
自矜者不長。
其在道也，曰：餘食贅形。
物或惡之，故有道者不處。

발돋움한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가랑이를 벌려 걷는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하고,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은 밝지 않고,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은 빛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도에서 보면 이런 것을 먹다 남은 밥, 쓸데없는 군살이라 한다.
누구나 그것을 싫어하니, 도를 지닌 사람은 거기 머물지 않는다.

제25장

有物混成，先天地生。
寂兮寥兮，獨立而不改，周行而不殆，可以為天地母。
吾不知其名，強字之曰道，強為之名曰大。
大曰逝，逝曰遠，遠曰反。
故道大，天大，地大，人亦大。
域中有四大，而人居其一焉。
人法地，地法天，天法道，道法自然。

뒤섞여 이루어진 것이 있으니, 하늘과 땅보다 먼저 생겼다.
고요하구나, 텅 비었구나. 홀로 서서 바뀌지 않고, 두루 돌아다녀도 위태롭지 않으니, 하늘과 땅의 어머니라 할 만하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른다. 억지로 글자를 붙여 도라 하고, 억지로 이름 지어 크다고 한다.
크면 떠나가고, 떠나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도가 크고, 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사람 또한 크다[1].
세상에는 큰 것이 넷 있는데, 사람이 그 하나를 차지한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自然)을 본받는다.

---

1. 저본대로 「사람(人)」으로 옮겼다. 왕필본은 이 구절과 다음 구절의 「人」을 「王」으로 적어 「왕 또한 크다」「왕이 그 하나를 차지한다」로 읽힌다.

제26장

重為輕根，靜為躁君。
是以君子終日行不離輜重。
雖有榮觀，燕處超然。
奈何萬乘之主，而以身輕天下？
輕則失根，躁則失君。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임금이다.
그래서 군자는 온종일 길을 가도 짐수레를 떠나지 않는다.
화려한 볼거리가 있어도 편안히 머물며 초연하다.
어찌하여 만 대 수레를 거느린 임금이 천하 앞에서 제 몸을 가볍게 굴리는가?
가벼우면 뿌리를 잃고, 조급하면 임금을 잃는다.

제27장

善行，無轍跡，善言，無瑕謫；
善數，不用籌策；
善閉，無關楗而不可開，善結，無繩約而不可解。
是以聖人常善救人，故無棄人；
常善救物，故無棄物。
是謂襲明。
故善人者，不善人之師；
不善人者，善人之資。
不貴其師，不愛其資，雖智大迷，是謂要妙。

잘 가는 사람은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고, 잘 말하는 사람은 흠잡힐 데가 없고,
잘 셈하는 사람은 산가지를 쓰지 않고,
잘 닫는 사람은 빗장이 없어도 열 수 없게 하고, 잘 묶는 사람은 끈이 없어도 풀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성인은 늘 사람을 잘 구하니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
늘 만물을 잘 구하니 버려지는 것이 없다.
이것을 밝음을 잇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착한 사람의 밑천이다.

스승을 귀히 여기지 않고 밑천을 아끼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로워도 크게 헤매니, 이것을 요긴하고 오묘한 이치라 한다.

제28장

知其雄，守其雌，為天下谿。
為天下谿，常德不離，復歸於嬰兒。
知其白，守其黑，為天下式，常德不忒，復歸於無極。
知其榮，守其辱，為天下谷。
為天下谷，常德乃足，復歸於樸。
為天下式。
樸散則為器，聖人用之，則為官長，故大制不割。

수컷을 알면서 암컷을 지키면 천하의 시내가 된다.
천하의 시내가 되면 늘 그러한 덕이 떠나지 않아 갓난아이로 돌아간다.
흰 것을 알면서 검은 것을 지키면 천하의 본보기가 되어, 늘 그러한 덕이 어긋나지 않고 끝없음(無極)으로 돌아간다.
영화로움을 알면서 욕됨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늘 그러한 덕이 넉넉해져 통나무로 돌아간다.
천하의 본보기가 된다[1].
통나무가 쪼개지면 그릇이 되고, 성인은 그것을 써서 벼슬아치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러므로 큰 다스림은 자르지 않는다.

---

1. 저본에만 있는 줄이다. 왕필본에는 이 자리에 없고, 셋째 줄에서 「천하의 본보기가 된다」가 한 번 더 되풀이된다. 자리가 어긋난 것으로 보이지만 저본대로 두었다.

제29장

將欲取天下而為之，吾見其不得已。
天下神器，不可為也，不可執也。
為者敗之，執者失之。
故物或行或隨，或噓或吹，或強或羸，或載或隳，是以聖人去甚，去奢，去泰。

천하를 차지하려고 손을 대려 들면, 나는 그가 이루지 못하리라고 본다.
천하는 신령한 그릇이라, 손댈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다.
손대는 사람은 그르치고, 붙잡는 사람은 잃는다.
그러므로 만물은 앞서 가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하며, 훈김을 내쉬기도 하고 찬 입김을 불기도 하며, 강하기도 하고 여위기도 하며, 싣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래서 성인은 지나침을 버리고, 사치를 버리고, 교만을 버린다.

제30장

以道佐人主者，不以兵強天下。
其事好還。
師之所處，荊棘生焉。
大軍之後，必有凶年。
善者果而已，不敢以取強。
果而勿矜，果而勿伐，果而勿驕。
果而不得已，果而勿強。
物壯則老，是謂不道，不道早已。

도로 임금을 돕는 사람은 무기로 천하에 강함을 부리지 않는다.
그런 일은 되돌아오기 쉽다.
군대가 머문 곳에는 가시덤불이 자란다.
큰 싸움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잘하는 사람은 이루기만 하고 그칠 뿐, 감히 강함을 취하지 않는다.
이루되 뽐내지 말고, 이루되 자랑하지 말고, 이루되 교만하지 말라.
이루되 마지못해 하고, 이루되 강함을 부리지 말라.
만물은 기운이 한창이면 늙는다. 이것을 도답지 않다고 한다. 도답지 않으면 일찍 끝난다.

제31장

夫佳兵者，不祥之器，物或惡之，故有道者不處。
君子居則貴左，用兵則貴右。
兵者不祥之器，非君子之器，不得已而用之，恬淡為上。
勝而不美，而美之者，是樂殺人。
夫樂殺人者，則不可得志於天下矣。
吉事尚左，凶事尚右。
偏將軍居左，上將軍居右，言以喪禮處之。
殺人之眾，以悲哀泣之，戰勝以喪禮處之。

좋은 무기란 상서롭지 못한 도구라, 누구나 그것을 싫어하니, 도를 지닌 사람은 거기 머물지 않는다.
군자는 평소에는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군사를 쓸 때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1].
무기는 상서롭지 못한 도구이지 군자의 도구가 아니니, 마지못해 쓸 때는 담담하게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겨도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사람은 천하에서 뜻을 이룰 수 없다.
좋은 일에는 왼쪽을 높이고, 궂은일에는 오른쪽을 높인다.
부장군은 왼쪽에 서고 상장군은 오른쪽에 서니, 상례로 대한다는

말이다.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슬퍼하며 울고, 싸움에 이기면 상례로 치른다.

---

1. 옛 예법에서 왼쪽은 살림과 경사의 자리, 오른쪽은 죽음과 상사(喪事)의 자리였다.

제32장

道常無名，樸雖小，天下莫能臣。
侯王若能守之，萬物將自賓。
天地相合，以降甘露，民莫之令而自均。
始制有名，名亦既有，夫亦將知止，知止可以不殆。
譬道之在天下，猶川谷之於江海。

도는 늘 이름이 없다. 통나무는 작아도 천하에 그것을 신하로 부릴 수 있는 이가 없다.
제후와 왕이 이것을 지킬 수 있으면 만물이 스스로 찾아와 따를 것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어울려 단 이슬을 내리니, 백성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고르게 된다.
처음 마름질하면 이름이 생긴다. 이름이 이미 생겼으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하니,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을 비유하면, 냇물과 골짜기 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제33장

知人者智，自知者明。
勝人者有力，自勝者強。
知足者富。
強行者有志。
不失其所者久。
死而不亡者壽。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기를 아는 사람은 밝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하다.
힘써 행하는 사람은 뜻이 있다.
제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오래간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사람은 오래 산다.

제34장

大道氾兮，其可左右。
萬物恃之以生而不辭，功成不名有，衣養萬物而不為主。
常無欲，可名於小；
萬物歸焉而不為主，可名為大。
以其終不自為大，故能成其大。

큰 도는 넘쳐흐르는구나,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다.
만물이 그것에 기대어 살아도 마다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제 것이라 이름하지 않으며, 만물을 입히고 기르면서도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늘 욕심이 없으니 작다고 이름할 수 있고,
만물이 그리로 돌아가도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니 크다고 이름할 수 있다.
끝내 스스로 크다고 하지 않기에 그 큼을 이룰 수 있다.

제35장

執大象，天下往。
往而不害，安平太。
樂與餌，過客止。
道之出口，淡乎其無味。
視之不足見，聽之不足聞，用之不足既。

큰 모습을 쥐고 있으면 천하가 그리로 간다.
가도 해를 입지 않으니, 편안하고 고르고 넉넉하다.
음악과 맛난 음식에는 지나가던 나그네도 걸음을 멈춘다.
도가 입에서 나오면 담담하구나, 아무 맛이 없다.
보아도 볼 만하지 않고, 들어도 들을 만하지 않지만, 써도 다 쓸 수 없다.

제36장

將欲歙之，必固張之；
將欲弱之，必固強之；
將欲廢之，必固興之；
將欲取之，必固與之。
是謂微明。
柔勝剛，弱勝強。
魚不可脫於淵，國之利器，不可以示人。

오므리려면 반드시 먼저 펴 주고,
약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해 주고,
없애려면 반드시 먼저 일으켜 주고,
빼앗으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이것을 숨은 밝음이라 한다.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물고기는 깊은 못을 벗어나면 안 되고, 나라의 날카로운 도구는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제37장

道常無為而無不為。
侯王若能守之，萬物將自化。
化而欲作，吾將鎮之以無名之樸。
鎮之以無名之樸，夫亦將不欲。
不欲以靜，天下將自正。

도는 늘 함이 없으나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제후와 왕이 이것을 지킬 수 있으면 만물이 저절로 달라질 것이다.
달라지면서 욕심이 일어나면, 나는 이름 없는 통나무로 그것을
누르겠다.
이름 없는 통나무로 누르면 욕심도 내지 않게 될 것이다.
욕심을 내지 않아 고요해지면 천하가 저절로 바르게 될 것이다.

하편 덕경(德經)

제38장부터 제81장까지

제38장

上德不德，是以有德；
下德不失德，是以無德。
上德無為而無以為；
下德無為而有以為。
上仁為之而無以為；
上義為之而有以為。
上禮為之而莫之應，則攘臂而扔之。
故失道而後德，失德而後仁，失仁而後義，失義而後禮。
夫禮者，忠信之薄，而亂之首。
前識者，道之華，而愚之始。
是以大丈夫處其厚，不居其薄；
處其實，不居其華。
故去彼取此。

높은 덕은 덕이라 여기지 않으니, 그래서 덕이 있고,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하니, 그래서 덕이 없다.
높은 덕은 함이 없고, 무엇을 하려는 마음도 없다.
낮은 덕은 함이 없으나,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
높은 어짊은 하되 무엇을 하려는 마음은 없고,
높은 의로움은 하되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
높은 예는 하되 아무도 응하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도를 잃은 뒤에 덕이 있고, 덕을 잃은 뒤에 어짊이 있고,
어짊을 잃은 뒤에 의로움이 있고, 의로움을 잃은 뒤에 예가 있다.
예란 정성과 믿음이 엷어진 것이며, 어지러움의 첫머리다.
앞질러 아는 것은 도의 꽃이며,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대장부는 두터운 데 머물고 엷은 데 머물지 않으며,
열매에 머물고 꽃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제39장

昔之得一者：天得一以清；
地得一以寧；
神得一以靈；
谷得一以盈；
萬物得一以生；
侯王得一以為天下正。
其致之也，天無以清，將恐裂；
地無以寧，將恐廢；
神無以靈，將恐歇；
谷無以盈，將恐竭；
萬物無以生，將恐滅；
侯王無以貞，將恐蹶。
故貴以賤為本，高以下為基。
是以侯王自稱孤、寡、不穀。
此非以賤為本邪？
非乎？
故致譽無譽。
是故不欲琭琭如玉，珞珞如石。

옛날에 하나를 얻은 것들이 있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고,
땅은 하나를 얻어 편안하고,

신은 하나를 얻어 신령하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 차고,
만물은 하나를 얻어 살고,
제후와 왕은 하나를 얻어 천하를 바르게 세운다.
이것을 끝까지 밀고 가 보면, 하늘이 맑을 수 없으면 갈라질까 두렵고,
땅이 편안할 수 없으면 무너질까 두렵고,
신이 신령할 수 없으면 사라질까 두렵고,
골짜기가 찰 수 없으면 마를까 두렵고,
만물이 살 수 없으면 없어질까 두렵고,
제후와 왕이 바르게 설 수 없으면 넘어질까 두렵다.
그러므로 귀함은 천함을 뿌리로 삼고, 높음은 낮음을 터로 삼는다.
그래서 제후와 왕은 스스로를 고(孤), 과(寡), 불곡(不穀)이라 부른다[1].
이것이 천함을 뿌리로 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기림을 끝까지 구하면 기림이 없다[2].
이 때문에 옥처럼 반들거리려 하지 않고, 돌처럼 투박하게 있으려 한다.

---

1. 고(孤)는 「외로운 사람」, 과(寡)는 「덕이 적은 사람」, 불곡(不穀)은 「착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옛 제후와 왕이 자기를 낮추어 부르던 말이다.

2. 저본은 「致譽無譽」이다. 왕필본은 「致數輿無輿」로, 「수레를 낱낱이 헤아리면 수레가 없다」로 읽힌다.

제40장

反者道之動；
弱者道之用。
天下萬物生於有，有生於無。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함이 도의 쓰임이다.
천하의 만물은 있음에서 나고, 있음은 없음에서 난다.

제41장

上士聞道，勤而行之；
中士聞道，若存若亡；
下士聞道，大笑之。
不笑不足以為道。
故建言有之：明道若昧；
進道若退；
夷道若類；
上德若谷；
大白若辱；
廣德若不足；
建德若偷；
質真若渝；
大方無隅；
大器晚成；
大音希聲；
大象無形；
道隱無名。
夫唯道，善貸且成。

뛰어난 선비는 도를 들으면 힘써 행하고,
보통 선비는 도를 들으면 있는 듯 없는 듯 여기고,

못난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웃는다.
웃지 않으면 도라 하기에 모자란다.
그래서 예부터 세워 둔 말에 이런 것이 있다. 밝은 도는 어두운 듯하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듯하고,
평탄한 도는 울퉁불퉁한 듯하고,
높은 덕은 골짜기 같고,
아주 흰 것은 때 묻은 듯하고,
넓은 덕은 모자란 듯하고,
굳센 덕은 게으른 듯하고,
참된 바탕은 변한 듯하고,
아주 큰 네모는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고,
큰 소리는 소리가 드물고,
큰 모습은 꼴이 없고,
도는 숨어 이름이 없다.
오직 도만이 잘 빌려주고 또 이루어 준다.

제42장

道生一，一生二，二生三，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沖氣以為和。
人之所惡，唯孤、寡、不穀，而王公以為稱。
故物或損之而益，或益之而損。
人之所教，我亦教之。
強梁者不得其死，吾將以為教父。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등에 지고 양을 품에 안으며, 비어 있는 기운으로 어울림을 이룬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고, 과, 불곡뿐인데, 왕과 공은 그것으로 스스로를 부른다.
그러므로 만물은 덜어 내면 더해지기도 하고, 더하면 덜어지기도 한다.
남들이 가르치는 것을 나도 가르친다.
"억센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 나는 이것을 가르침의 으뜸으로 삼겠다.

제43장

天下之至柔，馳騁天下之至堅。
無有入無間。
吾是以知無為之有益，不言之教，無為之益，天下希及之。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린다.
없는 것이 틈 없는 데로 들어간다.
나는 이것으로 함이 없음이 이로운 줄 안다. 말 없는 가르침과 함이 없음의 이로움에 천하에서 미치는 것이 드물다.

제44장

名與身孰親？
身與貨孰多？
得與亡孰病？
是故甚愛必大費；
多藏必厚亡。
故知足不辱，知止不殆，可以長久。

이름과 몸, 어느 것이 더 가까운가?
몸과 재물,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얻음과 잃음, 어느 것이 더 해로운가?
그러므로 지나치게 아끼면 반드시 크게 쓰게 되고,
많이 쌓아 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길고
오래갈 수 있다.

제45장

大成若缺，其用不弊。
大盈若沖，其用不窮。
大直若屈，大巧若拙，大辯若訥。
靜勝躁，寒勝熱。
清靜為天下正。

크게 이루어진 것은 모자란 듯하나, 그 쓰임은 닳지 않는다.
크게 찬 것은 빈 듯하나, 그 쓰임은 다하지 않는다.
아주 곧은 것은 굽은 듯하고, 큰 솜씨는 서툰 듯하고, 큰 말재주는 어눌한 듯하다.
고요함은 조급함을 이기고, 추위는 더위를 이긴다.
맑고 고요함이 천하의 바름이 된다.

제46장

天下有道，卻走馬以糞。
天下無道，戎馬生於郊。
禍莫大於不知足；
咎莫大於欲得。
故知足之足，常足矣。

천하에 도가 있으면 달리던 말을 물려 밭에 거름을 낸다.
천하에 도가 없으면 싸움말이 성 밖 들판에서 새끼를 낳는다.
재앙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얻으려는 욕심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알아서 얻는 만족이라야 늘 넉넉하다.

제47장

不出戶，知天下；
不窺牖，見天道。
其出彌遠，其知彌少。
是以聖人不行而知，不見而明，不為而成。

문밖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도를 본다.
멀리 나갈수록 아는 것은 더 적어진다.
그래서 성인은 다니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밝히고, 하지 않고도 이룬다.

제48장

為學日益，為道日損。
損之又損，以至於無為。
無為而無不為。
取天下常以無事，及其有事，不足以取天下。

배우는 일은 날마다 보태는 것이고, 도를 닦는 일은 날마다 덜어 내는 것이다.
덜고 또 덜어 함이 없음에 이른다.
함이 없으나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천하를 얻는 것은 늘 일 없음으로 하니, 일을 벌이면 천하를 얻기에 모자란다.

제49장

聖人常無心，以百姓心為心。
善者，吾善之；
不善者，吾亦善之；
德善。
信者，吾信之；
不信者，吾亦信之；
德信。
聖人在天下，歙歙焉，為天下渾其心，百姓皆注其耳目，聖人皆孩之。

성인은 늘 제 마음이 없어, 백성의 마음을 제 마음으로 삼는다.
착한 사람을 나는 착하게 대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도 나는 착하게 대하니,
덕이 착하다.
미더운 사람을 나는 믿고,
미덥지 않은 사람도 나는 믿으니,
덕이 미덥다.
성인은 천하에 있으면서 조심스레 몸을 거두고, 천하를 위해 제 마음을 흐릿하게 섞는다. 백성은 모두 귀와 눈을 그에게 쏟는데, 성인은 그들을 모두 아이처럼 대한다.

제50장

出生入死。
生之徒十有三；
死之徒十有三。
人之生，動之於死地，亦十有三。
夫何故？
以其生生之厚。
蓋聞善攝生者，路行不遇兕虎，入軍不被甲兵。
兕無所投其角，虎無所措其爪，兵無所容其刃。
夫何故？
以其無死地。

삶에서 나와 죽음으로 들어간다.
사는 무리가 열에 셋이고[1],
죽는 무리가 열에 셋이다.
사람이 살면서 움직여 죽을 자리로 가는 것도 열에 셋이다.
무엇 때문인가?
삶을 너무 두텁게 살려 하기 때문이다.
듣자니 삶을 잘 기르는 사람은 길을 가도 외뿔소나 범을 만나지 않고,
싸움터에 들어가도 칼과 창을 맞지 않는다고 한다.
외뿔소는 뿔을 들이받을 데가 없고, 범은 발톱을 댈 데가 없고, 무기는

칼날을 꽂을 데가 없다.

무엇 때문인가?

그에게는 죽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

1. 十有三을 「열에 셋」으로 옮겼다. 「열셋」으로 읽어 팔다리와 아홉 구멍을 가리킨다고 보는 옛 풀이도 있다.

제51장

道生之，德畜之，物形之，勢成之。
是以萬物莫不尊道而貴德。
道之尊，德之貴，夫莫之命而常自然。
故道生之，德畜之；
長之育之；
成之熟之；
養之覆之。
生而不有，為而不恃，長而不宰。
是謂玄德。

도가 낳고, 덕이 기르고, 사물이 꼴을 짓고, 형세가 이룬다.
그래서 만물은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
도가 높고 덕이 귀한 것은 누가 명해서가 아니라 늘 스스로
그러하기(自然)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가 낳고 덕이 기르며,
자라게 하고 키우며,
이루게 하고 여물게 하며,
먹여 기르고 덮어 준다.
낳되 가지지 않고, 하되 기대지 않고, 기르되 부리지 않는다.
이것을 가물한 덕(玄德)이라 한다.

제52장

天下有始，以為天下母。
既得其母，以知其子，復守其母，沒身不殆。
塞其兌，閉其門，終身不勤。
開其兌，濟其事，終身不救。
見小曰明，守柔曰強。
用其光，復歸其明，無遺身殃；
是為習常。

천하에는 처음이 있으니, 그것을 천하의 어머니로 삼는다.
그 어머니를 얻으면 그 자식을 알고, 자식을 알고서 다시 그 어머니를 지키면 몸이 다하도록 위태롭지 않다.
구멍을 막고 문을 닫으면 평생 지치지 않는다.
구멍을 열고 일을 늘리면 평생 건질 수 없다.
작은 것을 보는 것을 밝음이라 하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함이라 한다.
그 빛을 쓰되 다시 그 밝음으로 돌아가면 몸에 재앙을 남기지 않으니, 이것을 늘 그러함을 익힌다고 한다.

제53장

使我介然有知，行於大道，唯施是畏。
大道甚夷，而人好徑。
朝甚除，田甚蕪，倉甚虛；
服文采，帶利劍，厭飮食，財貨有餘；
是為盜夸。
非道也哉！

내게 조금이라도 앎이 있다면, 큰 도를 걸으며 오직 샛길로 빠질까 두려워하겠다.
큰 도는 아주 평탄한데 사람들은 샛길을 좋아한다.
조정은 말끔한데 밭은 몹시 거칠고 곳간은 텅 비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차고, 물리도록 먹고 마시고, 재물이 남아도니,
이것을 도둑의 사치라 한다.
도가 아니로구나!

제54장

善建者不拔，善抱者不脫，子孫以祭祀不輟。
修之於身，其德乃真；
修之於家，其德乃餘；
修之於鄉，其德乃長；
修之於國，其德乃豐；
修之於天下，其德乃普。
故以身觀身，以家觀家，以鄉觀鄉，以國觀國，以天下觀天下。
吾何以知天下然哉？
以此。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잘 품은 것은 빠져나가지 않으니, 자손이 제사를 끊이지 않는다.
그것을 몸에 닦으면 그 덕이 참되고,
집에 닦으면 그 덕이 넉넉하고,
마을에 닦으면 그 덕이 오래가고,
나라에 닦으면 그 덕이 풍성하고,
천하에 닦으면 그 덕이 두루 미친다.
그러므로 몸으로 몸을 보고, 집으로 집을 보고, 마을로 마을을 보고, 나라로 나라를 보고, 천하로 천하를 본다.
내가 무엇으로 천하가 그러함을 아는가?
이것으로 안다.

제55장

含德之厚，比於赤子。
毒蟲不螫，猛獸不據，攫鳥不搏。
骨弱筋柔而握固。
未知牝牡之合而朘作，精之至也。
終日號而不嗄，和之至也。
知和曰常，知常曰明。
益生曰祥。
心使氣曰強。
物壯則老，謂之不道，不道早已。

덕을 두텁게 품은 사람은 갓난아기에 견줄 만하다.
독벌레가 쏘지 않고, 사나운 짐승이 덮치지 않고, 사나운 새가 채 가지 않는다.
뼈는 약하고 힘줄은 부드러운데도 주먹은 단단히 쥔다.
암수의 어울림을 모르는데도 고추가 일어서니,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온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어울림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어울림을 아는 것을 늘 그러함이라 하고, 늘 그러함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한다.
삶을 억지로 더하려 드는 것을 흉한 조짐이라 하고,
마음이 기운을 부리는 것을 억셈이라 한다.

만물은 기운이 한창이면 늙는다. 이것을 도답지 않다고 한다. 도답지 않으면 일찍 끝난다.

제56장

知者不言，言者不知。
塞其兌，閉其門，挫其銳，解其紛，和其光，同其塵，是謂玄同。
故不可得而親，不可得而疏；
不可得而利，不可得而害；
不可得而貴，不可得而賤。
故為天下貴。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구멍을 막고 문을 닫는다. 날카로움을 꺾고, 얽힘을 풀고, 빛을 누그러뜨리고, 티끌과 하나가 된다. 이것을 가물한 같아짐(玄同)이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가까워질 수도 없고 멀어질 수도 없으며,
그를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그를 귀하게 할 수도 없고 천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귀하다.

제57장

以正治國，以奇用兵，以無事取天下。
吾何以知其然哉？
以此：天下多忌諱，而民彌貧；
人多利器，國家滋昏；
人多伎巧，奇物滋起；
法令滋彰，盜賊多有。
故聖人云：「我無為，而民自化；
我好靜，而民自正；
我無事，而民自富；
我無欲，而民自樸」。

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이함으로 군사를 부리고, 일 없음으로 천하를 얻는다.
내가 무엇으로 그러함을 아는가?
이것으로 안다. 천하에 꺼리고 금하는 것이 많을수록 백성은 더 가난해지고,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 어지러워지고,
사람들에게 잔재주가 많을수록 괴이한 물건이 더 생겨나고,
법령이 더 뚜렷해질수록 도둑이 많아진다.
그래서 성인은 말한다. "내가 함이 없으니 백성이 저절로 달라지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이 저절로 바르게 되고,

내가 일을 벌이지 않으니 백성이 저절로 넉넉해지고,
내가 욕심이 없으니 백성이 저절로 통나무처럼 된다."

제58장

其政悶悶，其民淳淳；
其政察察，其民缺缺。
禍兮，福之所倚，福兮，禍之所伏。
孰知其極？
其無正也。
正復為奇，善復為妖。
人之迷，其日固久。
是以聖人方而不割，廉而不劌，直而不肆，光而不耀。

다스림이 어수룩하면 백성은 순박하고,
다스림이 꼼꼼하고 깐깐하면 백성은 이지러진다.
화는 복이 기대어 있는 곳이고, 복은 화가 숨어 있는 곳이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정해진 바름이 없다.
바름은 다시 기이함이 되고, 착함은 다시 요사함이 된다.
사람이 헤맨 지 참으로 오래되었다.
그래서 성인은 반듯하되 남을 베지 않고, 모가 나되 남을 찌르지 않고,
곧되 함부로 뻗지 않고, 빛나되 눈부시지 않다.

제59장

治人事天，莫若嗇。
夫為嗇，是謂早服；
早服謂之重積德；
重積德則無不克；
無不克則莫知其極；
莫知其極，可以有國；
有國之母，可以長久；
是謂深根固柢，長生久視之道。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는 아낌만 한 것이 없다.
아끼는 것을 일찍 따름(早服)이라 하고[1],
일찍 따름을 덕을 거듭 쌓는다고 하고,
덕을 거듭 쌓으면 이겨 내지 못할 것이 없고,
이겨 내지 못할 것이 없으면 그 끝을 아무도 모르고,
그 끝을 아무도 모르면 나라를 가질 수 있고,
나라를 지니는 어머니가 있으면 길고 오래갈 수 있으니,
이것을 뿌리가 깊고 밑동이 단단하다고 한다. 오래 살고 오래 보는 도이다.

---

1. 早服을 「일찍 도를 따른다」로 옮겼다. 服을 備로 적어 「일찍 갖춘다」로 읽는 판본도 있다.

제60장

治大國，若烹小鮮。
以道蒞天下，其鬼不神；
非其鬼不神，其神不傷人；
非其神不傷人，聖人亦不傷人。
夫兩不相傷，故德交歸焉。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조리는 것과 같다.
도로 천하에 임하면 귀신이 신통함을 부리지 못하고,
귀신이 신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신통함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며,
그 신통함이 사람을 해치지 못할 뿐 아니라 성인도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둘이 서로 해치지 않으니, 그러므로 덕이 어우러져 그리로 돌아간다.

제61장

大國者下流，天下之交也，天下之牝。
牝常以靜勝牡，以靜為下。
故大國以下小國，則取小國；
小國以下大國，則取大國。
故或下以取，或下而取。
大國不過欲兼畜人，小國不過欲入事人。
夫兩者各得所欲，大者宜為下。

큰 나라는 강의 아래쪽이니, 천하가 모여드는 곳이고 천하의 암컷이다.
암컷은 늘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기니, 고요함으로 아래에 처한다.
그러므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몸을 낮추면 작은 나라를 얻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몸을 낮추면 큰 나라에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몸을 낮추어 얻기도 하고, 몸을 낮추어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큰 나라는 남을 아울러 기르려는 것일 뿐이고, 작은 나라는 들어가 남을 섬기려는 것일 뿐이다.
둘이 저마다 바라는 것을 얻으려면 큰 쪽이 마땅히 아래에 처해야 한다.

제62장

道者萬物之奧。
善人之寶，不善人之所保。
美言可以市尊，美行可以加人。
人之不善，何棄之有？
故立天子，置三公，雖有拱璧以先駟馬，不如坐進此道。
古之所以貴此道者何？
不曰求以得，有罪以免耶？
故為天下貴。

도는 만물의 깊은 안방이다.
착한 사람의 보배이고, 착하지 않은 사람도 그것으로 몸을 지킨다.
아름다운 말로는 높임을 살 수 있고, 아름다운 행실로는 남 위에 설 수 있다.
사람이 착하지 않다고 어찌 버릴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자를 세우고 삼공을 둘 때, 아름드리 옥을 앞세우고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바친다 해도[1], 앉아서 이 도를 바치느니만 못하다.
옛날에 이 도를 귀하게 여긴 까닭은 무엇인가?
구하면 얻고 죄가 있어도 벗어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천하에서 귀하다.

---

1. 삼공(三公)은 천자를 받드는 가장 높은 세 벼슬이다. 옛날에 귀한 예물을 바칠 때는 두 팔로 안을 만한 큰 옥(拱璧)을 먼저 올리고,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駟馬)를 뒤에 바쳤다.

제63장

為無為，事無事，味無味。
大小多少，報怨以德。
圖難於其易，為大於其細。
天下難事，必作於易，天下大事，必作於細。
是以聖人終不為大，故能成其大。
夫輕諾必寡信，多易必多難。
是以聖人猶難之，故終無難矣。

함이 없음을 하고, 일 없음을 일로 삼고, 맛없음을 맛본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원한은 덕으로 갚는다.
어려운 일은 쉬울 때 꾀하고, 큰일은 작을 때 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일어나고,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데서 일어난다.
그래서 성인은 끝내 큰일을 하지 않기에 그 큼을 이룰 수 있다.
가볍게 승낙하면 반드시 믿음이 적고, 쉽게 여기는 일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성인은 오히려 어렵게 여기기에 끝내 어려움이 없다.

제64장

其安易持，其未兆易謀，其脆易泮，其微易散，為之於未有，
治之於未亂。
合抱之木，生於毫末；
九層之臺，起於累土；
千里之行，始於足下。
為者敗之，執者失之，是以聖人無為，故無敗，無執，故無失。
民之從事，常於幾成而敗之；
慎終如始，則無敗事。
是以聖人欲不欲，不貴難得之貨；
學不學，復眾人之所過。
以輔萬物之自然，而不敢為。

편안할 때 지키기 쉽고, 조짐이 없을 때 꾀하기 쉽고, 여릴 때 깨뜨리기 쉽고, 작을 때 흩어 버리기 쉽다. 일이 생기기 전에 하고, 어지러워지기 전에 다스린다.
아름드리나무도 터럭 끝만 한 싹에서 자라고,
아홉 층 누대도 흙을 한 줌씩 쌓는 데서 일어나고,
천 리 길도 발밑에서 시작된다.
손대는 사람은 그르치고, 붙잡는 사람은 잃는다. 그래서 성인은 함이 없으니 그르침이 없고, 붙잡지 않으니 잃음이 없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늘 거의 다 이루어 갈 때 그르친다.

끝을 처음처럼 삼가면 그르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성인은 바라지 않음을 바라고,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배우지 않음을 배워, 뭇사람이 지나쳐 버린 것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만물의 스스로 그러함(自然)을 도울 뿐, 감히 나서서 하지 않는다.

제65장

古之善為道者，非以明民，將以愚之。
民之難治，以其智多。
故以智治國，國之賊；
不以智治國，國之福。
知此兩者，亦稽式。
常知稽式，是謂玄德，玄德深遠；
與物反矣，然後乃至大順。

옛날에 도를 잘 행한 사람은 백성을 밝게 하지 않고 어리석게 했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꾀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의 도둑이고,
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의 복이다.
이 둘을 아는 것이 또한 본보기다.
늘 본보기를 아는 것, 이것을 가물한 덕(玄德)이라 한다. 가물한 덕은 깊고 멀어,
만물과 함께 되돌아가니, 그런 뒤에야 크게 따름에 이른다.

제66장

江海之所以能為百谷王者，以其善下之，故能為百谷王。
是以聖人欲上民，必以言下之；
欲先民，必以身後之。
是以聖人處上而民不重，處前而民不害。
是以天下樂推而不厭。
以其不爭，故天下莫能與之爭。

강과 바다가 온갖 골짜기의 임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갖 골짜기의 임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백성 위에 서려면 반드시 말로 몸을 낮추고,
백성 앞에 서려면 반드시 몸을 뒤에 둔다.
이 때문에 성인이 위에 있어도 백성은 무겁게 여기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백성은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 천하가 기꺼이 받들고 싫증 내지 않는다.
다투지 않기에 천하에 그와 다툴 수 있는 이가 없다.

제67장

天下皆謂我道大，似不肖。
夫唯大，故似不肖；
若肖，久矣其細也夫！
我有三寶，持而保之。
一曰慈，二曰儉，三曰不敢為天下先。
慈故能勇；
儉故能廣；
不敢為天下先，故能成器長。
今舍慈且勇；
舍儉且廣；
舍後且先；
死矣！
夫慈以戰則勝，以守則固。
天將救之，以慈衛之。

천하가 모두 내 도가 크지만 아무것도 닮지 않은 듯하다고 말한다.
오직 크기에 아무것도 닮지 않은 듯하다.
무엇을 닮았다면 벌써 오래전에 작아졌을 것이다!
내게 세 가지 보배가 있어 늘 지니고 지킨다.
첫째는 자애, 둘째는 검소함, 셋째는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음이다.
자애롭기에 용감할 수 있고,

검소하기에 넓을 수 있고,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기에 만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이제 자애를 버리고 용감하려 하고,
검소함을 버리고 넓으려 하고,
뒤에 서기를 버리고 앞서려 하면,
죽을 뿐이다!
자애로 싸우면 이기고, 자애로 지키면 굳건하다.
하늘이 누군가를 구하려 할 때는 자애로 그를 지켜 준다.

제68장

善為士者不武；
善戰者不怒；
善勝敵者不與；
善用人者為之下。
是謂不爭之德，是謂用人之力，是謂配天古之極。

무사 노릇을 잘하는 사람은 사납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고,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맞붙지 않고,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은 그 아래에 선다.
이것을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이것을 남의 힘을 쓰는 것이라 하고,
이것을 하늘과 짝하는 옛날의 지극함이라 한다.

제69장

用兵有言：「吾不敢為主而為客；
不敢進寸而退尺。」
是謂行無行；
攘無臂；
扔無敵；
執無兵。
禍莫大於輕敵，輕敵幾喪吾寶。
故抗兵相若，哀者勝矣。

군사를 부리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다. "나는 감히 주인이 되지 않고 손님이 되며,
감히 한 치를 나아가지 않고 한 자를 물러선다."
이것을 일러 대열 없이 줄지어 나아가고,
팔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적 없이 적을 끌어당기고,
무기 없이 무기를 잡는다고 한다.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큰 재앙이 없으니, 적을 가볍게 여기면 내 보배를 거의 잃는다.
그러므로 맞선 군대의 힘이 비슷하면 슬퍼하는 쪽이 이긴다.

제70장

吾言甚易知，甚易行。
天下莫能知，莫能行。
言有宗，事有君。
夫唯無知，是以不我知。
知我者希，則我者貴。
是以聖人被褐而懷玉。

내 말은 아주 알기 쉽고 아주 행하기 쉽다.
그런데 천하에 아는 이가 없고 행하는 이가 없다.
말에는 으뜸이 있고, 일에는 임금이 있다.
오직 이것을 모르기에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아는 이가 드무니, 나를 본받는 이는 귀하다.
그래서 성인은 거친 베옷을 입고 가슴에 옥을 품는다.

제71장

知，不知，上矣；
不知，知，病也。
聖人不病，以其病病。
夫唯病病，是以不病。

알면서도 모른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낫고,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는 것은 병이다.
성인이 병들지 않는 것은 병을 병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오직 병을 병으로 여기기에 병들지 않는다.

제72장

民不畏威，則大威至。
無狎其所居，無厭其所生。
夫唯不厭，是以不厭。
是以聖人自知不自見；
自愛不自貴。
故去彼取此。

백성이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위엄이 닥친다.
그들이 사는 곳을 좁히지 말고, 그들의 삶을 짓누르지 말라.
오직 짓누르지 않기에 싫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은 자기를 알되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아끼되 높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제73장

勇於敢則殺，勇於不敢則活。
此兩者，或利或害。
天之所惡，孰知其故？
是以聖人猶難之。
天之道，不爭而善勝，不言而善應，不召而自來，繟然而善謀。
天網恢恢，疏而不失。

감히 하는 데 용감하면 죽고, 감히 하지 않는 데 용감하면 산다.
이 둘은 하나는 이롭고 하나는 해롭다.
하늘이 미워하는 것을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그래서 성인도 오히려 그것을 어렵게 여긴다.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고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고도 잘 응하고,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게 하고, 느긋하면서도 잘 꾀한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긴 듯해도 놓치는 것이 없다.

제74장

民不畏死，奈何以死懼之？
若使民常畏死，而為奇者，吾得執而殺之，孰敢？
常有司殺者殺。
夫代司殺者殺，是謂代大匠斲，夫代大匠斲者，希有不傷其手矣。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찌 죽음으로 그들을 겁주는가?
백성이 늘 죽음을 두려워하게 해 놓고, 괴이한 짓을 하는 자를 내가 잡아 죽인다면 누가 감히 그러겠는가?
늘 죽이는 일을 맡은 이가 있어 죽인다.
죽이는 일을 맡은 이를 대신해 죽이는 것은 큰 목수를 대신해 나무를 깎는 것과 같다. 큰 목수를 대신해 나무를 깎는 사람치고 제 손을 다치지 않는 이는 드물다.

제75장

民之飢，以其上食稅之多，是以飢。
民之難治，以其上之有為，是以難治。
民之輕死，以其上求生之厚，是以輕死。
夫唯無以生為者，是賢於貴生。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윗사람이 세금을 많이 먹기 때문이니, 그래서 굶주린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윗사람이 무엇을 하려 들기 때문이니, 그래서 다스리기 어렵다.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윗사람이 제 삶을 너무 두텁게 구하기 때문이니, 그래서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오직 삶을 위해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낫다.

제76장

人之生也柔弱，其死也堅強。
草木之生也柔脆，其死也枯槁。
故堅強者死之徒，柔弱者生之徒。
是以兵強則滅，木強則折。
強大處下，柔弱處上。

사람은 살아서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굳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도 살아서는 부드럽고 여리지만, 죽으면 마르고 뻣뻣해진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그래서 군대가 억세면 멸망하고, 나무가 억세면 부러진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놓인다.

제77장

天之道，其猶張弓歟？
高者抑之，下者舉之；
有餘者損之，不足者補之。
天之道，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損不足以奉有餘。
孰能有餘以奉天下，唯有道者。
是以聖人為而不恃，功成而不處，其不欲見賢。

하늘의 도는 활시위를 메우는 것과 같지 않은가?
높은 데는 누르고, 낮은 데는 들어 올리며,
남는 데서는 덜고, 모자란 데는 보탠다.
하늘의 도는 남는 것을 덜어 모자란 것을 보탠다.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아, 모자란 것을 덜어 남는 쪽에 바친다.
누가 남는 것으로 천하에 바칠 수 있는가? 오직 도를 지닌 사람뿐이다.
그래서 성인은 하되 기대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거기 머물지 않으며,
제 현명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제78장

天下莫柔弱於水，而攻堅強者，莫之能勝，以其無以易之。
弱之勝強，柔之勝剛，天下莫不知，莫能行。
是以聖人云：「受國之垢，是謂社稷主；
受國不祥，是為天下王。」
正言若反。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지만, 굳고 강한 것을 치는 데는 물을 이길 것이 없으니, 무엇으로도 물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는 것을 천하에 모르는 이가 없지만, 행하는 이는 없다.
그래서 성인은 말한다. "나라의 더러움을 떠맡는 사람을 사직의 주인이라 하고,
나라의 상서롭지 못한 일을 떠맡는 사람을 천하의 왕이라 한다."
바른말은 거꾸로 하는 말 같다.

제79장

和大怨，必有餘怨；
報怨以德，安可以為善？
是以聖人執左契，而不責於人。
有德司契，無德司徹。
天道無親，常與善人。

큰 원한을 풀어도 반드시 남은 원한이 있으니,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한들 어찌 잘했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인은 왼쪽 어음을 쥐고도 남에게 갚으라고 다그치지 않는다[1].
덕이 있는 사람은 어음을 맡고, 덕이 없는 사람은 세금 걷기를 맡는다[2].
하늘의 도는 따로 가까이하는 이가 없지만, 늘 착한 사람과 함께한다.

---

1. 옛날에 빚을 주고받을 때는 나무쪽에 약속을 새겨 둘로 쪼개고, 빌려준 쪽이 왼쪽을 지녔다가 받을 때 맞추어 보았다.

2. 원문은 徹. 주나라 때 거둔 곡식의 일정한 몫을 세금으로 걷던 법이다.

제80장

小國寡民。
使有什伯之器而不用；
使民重死而不遠徙。
雖有舟輿，無所乘之，雖有甲兵，無所陳之。
使民復結繩而用之。
甘其食，美其服，安其居，樂其俗。
鄰國相望，雞犬之聲相聞，民至老死，不相往來。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다.
열 사람 백 사람 몫을 하는 기물이 있어도 쓰지 않게 하고,
백성이 죽음을 무겁게 여겨 멀리 옮겨 다니지 않게 한다.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벌여 놓을 일이 없다.
백성이 다시 새끼에 매듭을 지어 쓰게 한다[1].
제 음식을 달게 먹고, 제 옷을 아름답게 여기고, 제 집을 편안히 여기고, 제 풍속을 즐긴다.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오가지 않는다.

---

1. 글자가 생기기 전에는 새끼에 매듭을 지어 일을 적고 셈을 했다고 한다.

제81장

信言不美，美言不信。
善者不辯，辯者不善。
知者不博，博者不知。
聖人不積，既以為人己愈有，既以與人己愈多。
天之道，利而不害；
聖人之道，為而不爭。

미더운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미덥지 않다.
착한 사람은 말을 잘하지 않고, 말 잘하는 사람은 착하지 않다.
아는 사람은 많이 알지 않고, 많이 아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성인은 쌓아 두지 않는다. 남을 위해 다 쓰는데도 자기에게 더 있고,
남에게 다 주는데도 자기에게 더 많다.
하늘의 도는 이롭게 하되 해치지 않고,
성인의 도는 하되 다투지 않는다.

판권면

도덕경

원제 · 道德經 (도덕경). 『노자(老子)』라고도 한다

지은이 · 노자 (老子, 전국 시대 무렵)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성립 · 기원전 4세기 무렵. 상편 도경(1~37장)과 하편 덕경(38~81장)의 81장 꼴은 3세기 위나라 왕필(王弼)이 주를 단 왕필본을 기준으로 굳었다.

저본 · 지금 널리 통행하는 왕필본 계열 81장 한문 본문의 전자 텍스트. 한문 원전에서 직접 옮겼으며, 제임스 레그(James Legge)의 영어 번역 《The Tao Teh King》(Sacred Books of the East 39, Oxford, 1891)은 대조에만 썼다.

분량 · 원문 한자 5,301자(부호 제외) · 81장 · 구절 572줄 · 옮긴이 주 16개

바로잡은 곳 · 저본 전자 텍스트가 간체자를 번체자로 되돌리며 생긴 글자, 비어 있던 두 글자(제20장), 오식 두 곳(제64장). 왕필본과 글자가 달라 뜻이 바뀌는 자리는 저본대로 옮기고 각주에 밝혔다.

저작권 · 원저작물은 기원전에 이루어진 글이다. 대한민국(저작권법, 저작자 사후 70년)과 미국 모두에서 보호기간이 오래전에 끝난 퍼블릭 도메인이다. 저본 본문은 고대 원문 그대로라 새 저작권이 생기지 않으며, 대조에 쓴 레그의 영어 번역(1891)도 퍼블릭 도메인이다.

한국어 번역 · 이 한국어 번역은 에테르 라이브러리가 만들었다. 번역문의 저작권은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CC BY-NC 4.0) 조건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읽고 공유할 수 있다.

판 · 1.0판 · 2026년 11월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25